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TURNAWAY GIRLS

가제 : 돌아선 아이들

저자 : Hayley Chewins

출판사: Candlewick

발행일: 2018년 9월 19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판타지

연령 : 10-14세



- * 커커스 리뷰가 선정한 2018년 최고의 책 리스트에 포함 / 헝가리, 폴란드 판권 계약
- * “침묵이 정말 금이 되고, 입을 열면 큰 대가가 따르는 환상적인 세상을 무대로 한, 놀랍도록 야심 차고 시적인 데뷔작” - 『The Island at the End of Everything』의 작가 키란 하그레이브
- * “참신하면서도 친숙하고, 마법과 음악, 가슴 뛰는 감정이 모두 담긴 클래식한 동화” - 『Some Kind of Happiness』의 작가 클레어 리그랜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벽 너머에서 연주자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희미한 빛의 방’에 모인 소녀들은 가만히 손을 그 벽에 대고 멜로디에 집중한다. 피리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그곳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소녀들의 몸 전체를 감싸고, 온 몸으로 받아들인 멜로디는 양손 끝에서 방 이름처럼 희미한 빛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몸 구석구석을 돌아, 음악이 가느다란 실처럼 금으로 변하고 뭉쳐져 손끝에 모이는 것이다. 음악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몸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소녀들, 태어나자마자 ‘돌아선 아이들’로 분류되어 험한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의 커다란 돌로 지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이 소녀들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을 만들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다. 귀로 흘러 들어온 멜로디가 피처럼, 물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못하는 아이, 자꾸만 몸 곳곳에서 아름다운 곡조와 리듬을 짚 붙들려고 하니 델퍼니아의 손에는 단 한 조각의 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제 열두 살, 마스터의 선택을 받을 날이 가까워오자 이 특별한 수녀원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구축된 완벽한 시스템에 큰 흠집을 낼 수도 있는 델퍼니아를 향한 아홉 번째 수녀님의 분노와 채찍질은 날로 거세진다. 하지만 델퍼니아가 다른 아이들처럼 금을 만들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델퍼니아는 돌아선 아이들이라면 절대 갖지 말아야 하는 것, ‘노래하는 목소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블라이트센드 섬에서는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거울을 얼굴 앞에 가져다 댄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응시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 획 돌아서버리는 아이들은 ‘돌아선 아이들’로 분류되어 섬 구석에 자리한 수녀원으로 보내진다. 첫 번째 수녀님은 돌아선 아이들 중 처음으로 멜로

디를 금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한 자락 바람처럼 아무 소리 없이 오가며 손 끝에서 금을 탄생시키는 마법 같은 일을 해낸 첫 번째 수녀님의 뒤를 이어 수녀원에서는 이곳에 보내진 모든 소녀들에게 같은 기술을 가르쳤다. 머나먼 블라이트센드 시에서는 이들이 만든 금을 수거해가는 대신 먹을 식량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금을 만들지 못하는 건 배를 굶는 길이나 마찬가지였고, 소녀들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금 만드는 일을 배웠다. 귀에 들려오는 멜로디에 집중하며 기도문을 외우고, 온 몸으로 음표 하나하나를 모두 받아들이는 기술이었다. 음악을 자신의 소유로 간직하거나,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따라 부르는 일은 엄격히 금지됐다. 음악은 금을 만드는 원료일 뿐, 소녀들이 갖거나 즐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델퍼니아는 처음부터 이 모든 규칙에 어긋나는 아이였다. 벽 뒤에서 들리는 음악보다 분명 그곳에 서서 피리를 불고 있을 연주자가 궁금했고, 아름다운 멜로디는 갈비뼈 사이사이에, 가슴 한 켠에 남겨두고 싶었다. 무엇보다 자꾸만 목 나오는 노래를 억누르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그래서 델퍼니아는 모두가 잠든 철책 같은 한밤중이 되면 몰래 수녀원을 빠져 나와 거대한 나무 동치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바깥에서 거칠게 절벽과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델퍼니아는 꼭 눌러 두었던 노래를 불렀다. 수녀님이 안다면, 블라이트센드 시에서 알려진다면 당장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쳐지는 벌이 떨어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며 버티기엔 너무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블라이트센드 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벨의 축제’였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남자 아이들은 시에서 음악가로 성장하고, 음악가가 되면 곳곳에 작은 종이 달린 특별한 가운을 입는다. ‘마스터’로 불리는 이들은 블라이트센드 섬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의 유일한 소유자이고, 오직 마스터만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수녀원을 찾아와 자신의 화려한 가운에 장식할 금을 만들어줄 소녀를 선택한다. 마스터의 선택을 받지 못한 소녀는 수녀님 밑에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만 한다. 금 한 조각 만들지 못하는 델퍼니아는 마스터들이 수녀원을 찾는 벨의 축제 기간이 다가와도 다른 소녀들처럼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출중한 능력을 가진 소녀들이 하나 둘 마스터와 함께 블라이트센드 시로 떠나고 예상대로 더 비참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다고 단념할 때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시를 말하는 소년, 블라이라는 이름의 수수께끼 같은 마스터가 찾아와 델퍼니아를 선택한 것이다. 절대 누리지 못할 줄 알았던 자유를 덜컥 얻게 된 델퍼니아는 블라이와 함께 도시로 향하고,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몸으로 마스터가 된 리나 룬드와 만난다. 이곳에서는 델퍼니아도 마음껏 노래할 수 있을까? 음악을 듣고 금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하면 금빛 새가,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델퍼니아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유와 정체성, 정해진 운명 대신 자신만의 운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처럼 아름답게 전개되는 멋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헤일리 추윈(Hayley Chewins)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나 영문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현재 영국 바스스파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제목 : THE MISSING PIECE OF CHARLIE O'REILLY

가제 : 찰리 오레일리가 잃어버린 것

저자 : Rebecca K.S Ansari

출판사: Walden Pond Press

발행일: 2019년 3월 5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성장소설

연령 : 8-12세



- * “제자리에 딱 들어가는 퍼즐 조각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로 만들어준다. 매우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소설” - 내셔널 북어워드 결승 진출자, 『The Question of Miracles』의 작가 엘레나 K. 아놀드
- * “독창적인 전제, 눈물을 쏟게 만드는 반전, 용서에 관한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겨 8-12세 독자들이라면 모두 읽어볼 만한 이야기”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아끼던 물건 하나가 갑자기 사라져도 한동안 아쉬워서 계속 찾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것도 가족이 사라지면 어떤 기분일까?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눈 앞에서 살아 숨쉬던 동생이 아침에 눈을 뜨자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그런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찰리는 1년 전 일어난 이 믿기 힘든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 왔다. 한 방에서 매일 장난치고, 싸우기도 하고 배가 아플 때까지 깔깔 웃으면서 지내던 리암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게다가 대체 부모님은 어떻게 리암의 존재 자체를 강그리 잊을 수가 있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찰리는 이 놀라운 사태가 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버리지 못한다. 작년 찰리의 생일 전날 밤, 간절히 빌고 또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찰리는 열한 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이미 무슨 선물을 받을지 다 정해놓았다. 거의 비어 있는 손님방으로 리암을 보내고 지금 둘이 함께 쓰는 방을 혼자서 쓰게 해달라는 것이다. 엄마가 슬슬 파티 준비를 시작한 낌새가 보이자마자 찰리는 다른 선물은 원하지도 않고 파티도 안 해도 되니 제발 리암과 방을 분리해달라고 애원했다. 물론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지만, 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생일 전날 밤, 리암은 또 뭔가에 잔뜩 화가 나서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왔다. 한참 울었는지 두 눈이 벌건 리암은 무슨 일이냐는 찰리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이층 침대 아래칸, 찰리의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손에 닿는 물건을 마구 던지고 찢기 시작했는데, 하필 찰리가 정말 아까는 만화책 최신호도 리암의 화풀이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찰리는 리암에게 소리를 질렀고 시끄러운 소리에 달려온 아빠로 인해 둘은 가까스로 싸움을 멈추고 각자 침대에 누웠다. 그 날, 찰리는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간절히 빌었다. 리암을 없애달라고,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해 달라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줄 알았다. 머리 위에 보여야 할 리암의 매트리스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방 곳곳에 널려 있던 리암의 인형과 레고, 옷가지도 전부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엄마아

빠는 이 큰 가구와 잡다한 물건들을 소리도 안 내고 옮겨갔을까, 신기해하며 신이 나서 부모님이 있는 부엌으로 달려간 찰리는 당혹스러운 반응과 맞닥뜨린다. 소원 들어줘서 고맙다는 찰리의 외침에 엄마도 아빠도 어리둥절해하는 것이다. 리암이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고개만 가우뚱하는 부모님을 보며 찰리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분명 넷이서 찍은 사진들에서도 리암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곁에서 살아 숨쉬던 말썽쟁이, 리암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동안 리암의 존재를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던 찰리로 인해 엄마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하던 일까지 그만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연사 박물관에 일하는 아빠가 다행히 승진을 해서 엄마가 못 벌게 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지만 출장도 잦고 일도 더 많아져 아빠가 집을 비우면 집안일은 거의 손을 놓고 사는 엄마 대신 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하면서 살아야 했다. 리암의 이야기를 고집스레 입에 올리는 찰리가 정서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판단한 어른들은 매주 심리치료가까지 받게 했지만 당연히 소용 없었고, 아무도 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찰리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꼬마 시절부터 친구였던 애나 뿐이었다. 애나 역시 리암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찰리의 열띤 주장과 설명을 다 사실로 받아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리암을 찾아내고 말겠다는 찰리를 곁에서 열심히 응원했다.

리암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나고 찰리의 열두 살 생일이 다가올 즈음, 찰리와 애나의 학교에 못 보던 사람이 나타난다. 학교 야구팀의 새로운 보조 코치로 뽑힌 조너선이라는 형이었다. 처음부터 어딘지 꺼림직한 구석이 느껴지던 조너선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찰리와 애나는 리암의 글씨체가 분명한 쪽지 하나를 발견하고, 갑자기 나타난 그 쪽지가 조너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들은 조너선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아주 오래 전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는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소원을 빌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찰리가 사는 이곳으로 시간여행을 하듯 획 보내졌다는 것이다! 조너선이 말한 고아원은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지어졌고 건물 전체가 다 타버린 대형 화재사고로 지금은 자취도 없는 곳이었다. 조너선은 목에 걸린 작은 네 잎 클로버 모양의 목걸이를 보여 주면서 그 이파리 사이 구멍을 응시하면, 떠나온 곳과 그 시간의 일들을 열쇠구멍 사이로 훑쳐보듯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 고아원 원장이던 브로나 선생님 때문이라는 조너선의 말처럼, 리암도 낯선 시간과 공간으로 보내진 것일까? 브로나의 정체는 누구일까? 리암이 사라진 후부터 찰리가 거의 매일 밤 시달려온 악몽과 그 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조너선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찰리와 애나는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현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리암처럼 아예 없던 사람이 될 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나선 찰리와 애나, 조너선의 모험은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레베카 K.S 앤서리(Rebecca K.S Ansari)는 응급실 의사로 12년간 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